

한국야구 “금메달 걸고 도하 치욕 씻겠다”

광저우 입성…조범현 감독 훈련일정 잡히지 않아 막판 실전감각 끌어올리기 고심

8년 만에 아시안 게임 정상을 노리는 야구 대표팀이 10일 ‘결전의 땅’ 중국 광저우에 입성했다.

대표팀은 이끌고 광저우에 도착한 조범현 감독은 훈련 일정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조 감독은 이날 오후 광저우 바이윈 공항에 도착한 뒤 “오늘부터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도 스케줄이 잡혔다. 이미 오늘 훈련은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욱 문제는 11일과 12일의 훈련 일정도

좋지 않다는 점이다. 대표팀은 11일에는 오전 10시45분, 12일에는 오후 8시30분부터 두 시간가량 훈련하는 것으로 돼 있다.

대표팀은 13일 가장 까다로운 상대로 힘쓰는 대만과 예상 첫 경기를 차를 예정이다. 지난 달 25일부터 소집돼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대표팀으로서는 정식 경기를 앞두고 막판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 시리즈에 참가하느라 뒤늦게 합류한 김태균(지바 롯데)을 비롯해 대만에서 햄프顿을 치르고 복귀한 박경완(송은범), 최정 등 SK 선수들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내 대표팀과 손발을 맞출 시간이 절실히다.

조 감독은 사회인 야구 선수로 구성된 일본 대표팀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한국은 조별리그 성적에 따라 준결승에서 일본과 맞붙을 수 있다.

조 감독은 “유남호 한국야구위원회 경기 운영위원 등이 일본으로 건너가 전력을 분석했다”며 “일본 대표팀은 프로야구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15점이나 뽑으며 이겼다. 대만보다 한 수 위의 실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한국 대표팀은 2006년 도하 대회 당시 우

승까지 노렸으나 대만에 패한 뒤 사회인 야구 선수로 이뤄진 일본에도 지면서 동메달에 그친 경험이 있다.

조 감독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시안 게임 금메달 획득 자신감을 전했다.

조 감독은 “내일과 모레 선수들 컨디션을 최종 점검해 정상 쾌도에 올릴 것”이라며 “애초 대표팀 선수들의 몸이 무거워보였으나 애수를 중심으로 배팅 컨디션 등이 정상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수도 류현진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의 컨디션은 괜찮은 편으로 류현진이 아직 페넌트레이스 때의 컨디션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집중하고 던지면 좋은 구위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표팀 투수들 공 받아 본 불펜 포수 KIA 조현

“마무리 정대현의 싱커는 마구 대만·일본타선 무력화 시킬것”

“특급 마무리 정대현 있기에 야구 대표팀 이상 없다.”

광저우 아시안 게임 야구 대표팀에는 사령탑 조범현 감독을 비롯해 이용규·윤석민·양현종 세 명의 KIA 선수가 뛰고 있다. 그리고 KIA의 불펜 포수 조현(사진)도 그라운드 밖에서 금메달 사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조현은 불펜포수로 지난달 25일부터 대표팀 투수들하고 호흡을 맞춰왔다. 직접 공을 받고 있는만큼 누구보다 대표팀 마운드의 컨디션을 잘 알고 있다.

조현은 “시즌이 끝나서 감도 떨어졌고, 피로도가 쌓여있는 만큼 투수들의 상태가 베스트는 아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페이스는 좋은 만큼 경기에 맞춰 최상의 컨디션이 올라올 것 같다”고 밝혔다.

투수들의 컨디션에 다소 쳐져 있지만 공의 위력은 ‘특급’이다.

조현은 “직접 공을 받아보니 옆에서 지켜 보던 것보다 더욱 공이 위력적이었다. 역시 대표팀 투수들이라는 생각이 드 정도로 최고의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이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선수는 대표팀의 뒷문을 책임지게 될 SK의 정대현이다. 정대현은 베이징 올림픽 쿠바와의 결승전 9회말 마지막 위기에서 병살



플레이를 유도하며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겨 준 국제 대회 전문 특급 마무리.

조현은 “정대현 선배의 공을 받고 느낌이 너무 좋았다. 특히 싱커의 위력은 최고라고 할 수 있다. 큰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LG 봉중근의 서를 체인지업, 삼성 안진민의 슬라이더, 두산 김태훈의 체인지업을 ‘마구’로 꼽았다. 팀 동료인 윤석민의 팔색조 매력과 양현종의 신무기 커스터브를 언급했다.

양현종은 부산 전지훈련에서 대표팀 투수코치인 김시진 네센 감독으로부터 커스터브를 전수받았다.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위력적이라는 평가다.

투수들의 컨디션에 다소 쳐져 있지만 공의 위력은 ‘특급’이다.

조현은 “직접 공을 받아보니 옆에서 지켜 보던 것보다 더욱 공이 위력적이었다. 역시 대표팀 투수들이라는 생각이 드 정도로 최고의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이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선수는 대표팀의 뒷문을 책임지게 될 SK의 정대현이다. 정대현은 베이징 올림픽 쿠바와의 결승전 9회말 마지막 위기에서 병살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13번째로 선수촌 입촌

수단 입촌식에서 태극기가 게양되고 있다.

아시안게임 개막을 이틀 앞둔 10일 광저우 아시안게임 선수촌 국제 광장에서 열린 한국 선수촌 입촌식에서 태극기가 게양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김홍식 교수



한편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1일 제106차 이사회에서 임원진(이사)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만장일치로 체육회장에게 위임한 바 있다.

김상임부회장은 “2015년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이 지역 출신 선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에 중점을 두고 엘리트 체육인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요한 시기에 주체를 맡은 만큼 체육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광주시와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이클 나이름·역도 이정재 최우수 선수상

전국체전 전남 선수단 해단식



전국체전 4관왕에 빛나는 사이클의 나아름(여·나주시청)과 역도 3관왕 이정재(보성군청)가 전남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다.

나아름과 이정재는 10일 오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제91회 전국체육대회 전남선수단 해단식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나아름은 이날 수상으로 3년 연속 최우수 선수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나아름은 아시안개인 참가를 위해 광저우행에 올라 행사는 참가하지 못했다.

최우수팀상은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전남체고와 근대5종부부가 수상했다. 전남체탁탁카로협회, 꿈풀협회, 농구협회, 배구협회, 하기협회는 성취상 단체로 선정됐다.

남고부 100m와 멀리뛰기에서 2관왕에 오

난아름

〈나아름〉

〈이정재〉

른 육상 활약대(전남체고)는 전남체육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미래상의 주인공이 됐다. 근대5종 2관왕 박상구(전남체고)는 지역 출신 국가대표 선수 모임인 태극회에서 수여하는 우수선수상을 받았다.

한편 이날 해단식에는 전남체육회장인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서정복 사무처장과 장만채 도교육감 등 인원 및 입상선수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여울기자 woori@

“끈질기고 강한 축구로 내년 K리그 우승”

전남 정해성 감독 일정 돌입

“지역민의 기쁨이 되는 강한 팀, 끈질긴 팀을 만들겠다.”

정해성 전 국가대표 수석코치가 10일 전남 드래곤즈 제 7대 감독에 취임했다.

정해성 감독은 10일 오전 광양 전남 드래곤즈 구단 사무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정 감독은 “전남에서 코치로 활동하면서 끄거운 축구 열기를 느꼈다. 그때 그 시절을 대현하고 싶다”며 “현재의 전남 팀킬러에 공격축구를 더욱 거칠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감독은 “전남에서 코치로 활동하면서 끄거운 축구 열기였다. 그때 그 시절을 대현하고 싶다”며 “현재의 전남 팀킬러에 공격축구를 더욱 거칠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감독은 또 “오는 16일부터 3주간 훈련에 들어간다. 함께 갈 선수와 그렇지 않을 선수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최선은 다음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선수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은 지난 5일 박향서 전 감독이 성적부진을 이유로 사퇴의사를 밝힌 뒤 새로운 감독을 물색해 왔다. 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하석주 수석코치는 교체할 방침이다.

/김여울기자 woori@kwangju.co.kr

〈이정재〉

〈나아름〉

코치로 활약한 바 있다. 2006년에는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K-리그 사령탑에 데뷔했다.

내년 목표를 우승으로 내건 정해성은 “불가능한 목표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지동원·윤석영 등 능력있는 젊은 선수들이 많은 민족 우승도 가능하다고 본다. 선수단 동기부여로 훈련에 참여해 전남체육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전남체고와 근대5종부부가 수상했다.

정해성 감독은 10일 오후 광양 전남 드래곤즈 구단 사무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정 감독은 “전남에서 코치로 활동하면서 끄거운 축구 열기였다. 그때 그 시절을 대현하고 싶다”며 “현재의 전남 팀킬러에 공격축구를 더욱 거칠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감독은 또 “오는 16일부터 3주간 훈련에 들어간다. 함께 갈 선수와 그렇지 않을 선수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최선은 다음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선수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은 지난 5일 박향서 전 감독이 성적부진을 이유로 사퇴의사를 밝힌 뒤 새로운 감독을 물색해 왔다. 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하석주 수석코치는 교체할 방침이다.

/김여울기자 woori@kwangju.co.kr

〈나아름〉

〈정해성〉

“끈질기고 강한 축구로 내년 K리그 우승”

전남 정해성 감독 일정 돌입

“지역민의 기쁨이 되는 강한 팀, 끈질긴 팀을 만들겠다.”

정해성 전 국가대표 수석코치가 10일 전남 드래곤즈 제 7대 감독에 취임했다.

정해성 감독은 10일 오후 광양 전남 드래곤즈 구단 사무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정 감독은 “전남에서 코치로 활동하면서 끄거운 축구 열기였다. 그때 그 시절을 대현하고 싶다”며 “현재의 전남 팀킬러에 공격축구를 더욱 거칠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감독은 또 “오는 16일부터 3주간 훈련에 들어간다. 함께 갈 선수와 그렇지 않을 선수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최선은 다음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선수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은 지난 5일 박향서 전 감독이 성적부진을 이유로 사퇴의사를 밝힌 뒤 새로운 감독을 물색해 왔다. 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하석주 수석코치는 교체할 방침이다.

/김여울기자 woori@kwangju.co.kr

〈나아름〉

〈정해성〉

〈나아름〉

〈정해성〉

〈나아름〉

〈정해성〉

〈정해성〉